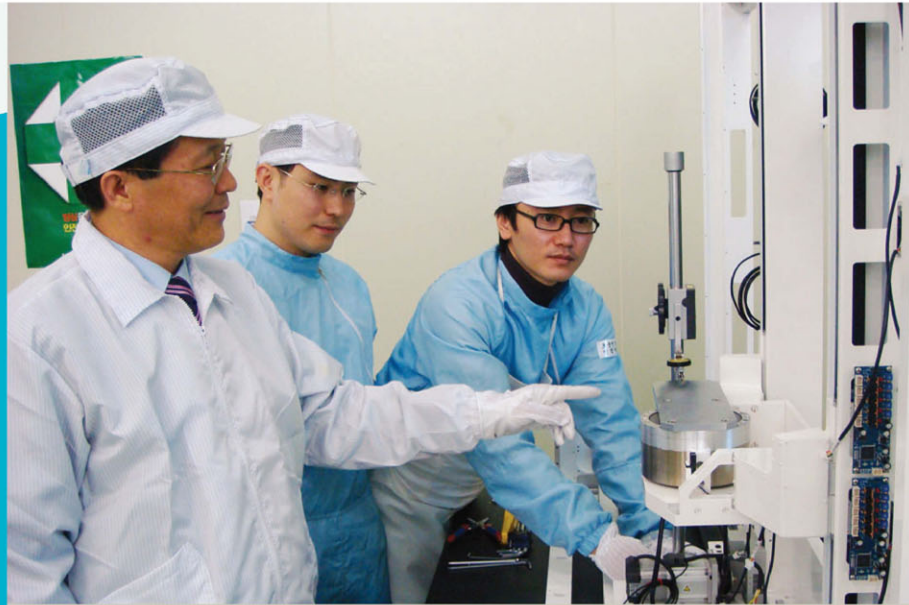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로봇기술 역사를 새로 쓸 (주)세스텍 신기범 대표



대한민국 대표 제품, 반도체와 LCD 생산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로봇이다. 천안에 위치한 반도체 및 LCD제작에 쓰이는 고가 하이테크 로봇과 로봇시스템장비를 만드는 (주)세스텍(www.sestech.co.kr)과 국내 최초의 로봇개발로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신기범 대표에게 이메일을 띄웠다. 이에 신 대표는 Wafer Transfer Robot로봇, LCD Transfer Robot로봇, LCD Index 로봇 시스템 장비 등을 개발·제조하며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고객신뢰로 반도체 LCD 로봇 분야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어린 답신을 보내왔다. 회사설립 이래 지금까지 고객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늘 최고의 찬사를 받아온 세스텍의 남다른 저력을 알아보자.

Q. LCD·반도체 로봇 및 로봇시스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창업 전에 대기업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을 개발, 양산, 적용하고 사업화하는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산업용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당시 반도체와 LCD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미국의 로봇과 장비가 비싼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고 공정에 적합한 로봇과 장비의 국산화를 제안하여 개발·양산하였다.

그런데 로봇 장비 투자의 성패는 초기투자비인 로봇 장비의 구매도 중요하지만 연결 주변 장치와 프로그램 장비수명기간 동안의 신뢰성과 유지보수비용, 성능개조 개선에 따른 추가투자비가 문제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다. 로봇 장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비싼 여러 프로그램과 설치비용도 문제이며 고장이라도 나면 비싼 출장비와 상상을 초월하는 부품비용이 로봇 본체 구입비용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즉 로봇장비는 하드웨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기술비용이 관건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세스텍은 로봇이나 장비를 제작 공급에 그치지 않고 이들 기계들이 특정한 산업 현장조건에서 다루기 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Q. 세스텍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KiBo A+ Members' 를 받을 정도로 탄탄한 경영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가능케 했던 세스텍만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세스텍 제일의 자산은 기술이다. 그 기술력은 우수한 인재로부터 비롯된다. 즉 인재가 제일의 자산인 셈이다. 3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 80명 직원 대부분이 로봇전문가와 메카트로닉스 장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성 이외에 직원들의 남다른 열정도 세스텍의 역량으로 덧붙이고 싶다. 반도체 LCD 공정의 로봇과 장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업무에 부딪치며 기술축적과 고객만족을 이루어 온 임직원이 나의 자랑이고 세스텍의 자랑이다. 최근에는 타 업체가 공급한 로봇일지라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개조하고야 마는 세계 최초의 실적을 갖게 되기도 했다.

Q. 세스텍이 천안을 사업장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천안의 사업 환경은 어떠한지

세스텍의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이다. 삼성전자의 LCD, 반도체 로봇 장비 관련사는 천안 아산 일대에 클러스터처럼 입지해 있다. 때문에 원래 세스텍의 사업장은 수원

신대표의 취미는 마라톤이다. 본인의 건강이 곧 회사의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마라톤을 한다는 신대표는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스피드 조절을 해야 한다는 마라톤의 속성이 기업의 경영과 비슷해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가파른 길과 평평한 길을 계속해서 뛰어가며 쉽지 않은 사업의 마라톤 코스를 뛰고 있는 신기범 대표. “살아남는 좋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능이 높은 종도 아닌, 변화에 맞추어 가장 적응을 잘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는 찰스다윈의 말을 가슴에 담고 세스텍과 신대표는 끊임없는 변화로 오늘도 대한민국 로봇기술의 역사를 성큼성큼 바꾸고 있다.

이었으나 현장 밀착지원 대응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위해 회사를 수원에서 천안으로 이전한 것이다. 다행히 공장주변이 계획된 공간이어서 물류에 큰 어려움은 없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Q. 지방에서 기업경영 한다는 것은 어떤 인센티브와 마이너스가 있는지
 사업 초기엔 인력수급에 다소 애로점이 있었으나 세스텍의 경우 꾸준한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이제는 인력수급이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시책 및 정책 등에 대한 접근, 기업 애로점 등에 대한 컨설팅 등에 대한 혜택들이 서울에 있는 기업보다 조금 적고 접근 기회도 적은 것 같다.

다만 수도권 이전 시 법인세 감면혜택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의해 받는 혜택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한다.

Q. 지방에서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폭과 대상이 넓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지방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장기적이고 꼼꼼한 육성전략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당연히 현재 지방에 거주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Q. 반도체·LCD 로봇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모두 알다시피 반도체, LCD 는 한국이 세계 제일이며 한국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배경에는 생산 수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이 핵심인데 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글라스 사이즈의 대형화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은 매년 글라스 사이즈를 대형화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로봇과 로봇 시스템도 대형화 고속화 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매년 1개 라인 이상 신규 증설하고 있으며 보통 라인 당 300~400개의 로봇 및 로봇시스템장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에 로봇, 로봇 시스템 장비의 특성상 생산 현장에서 효율적인 운용과 문제에 대한 즉각 대응 등 관리와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산 비중이 줄고 국내 제품 선호도가 상승, 향후 그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Q. 세스텍만의 독특한 문화나 직원 복지가 있다면

세스텍은 평생 학습을 모토로 하고 있다. 세스텍은 직원들이 어느 곳, 어느

조건, 어느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평생 교육을 진행한다. 업무 중심의 교육 뿐 아니라 인성교육 생활교육에 오히려 더 힘을 주고 있다. 입문교육, 리더교육, 혁신교육 등 현실 업무 중심의 교육내용과 교육자 전원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전 직원은 년 2회 이상의 연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탐구에 의한 자기 개발의 동기가 되면서 곧 회사 지식 경영의 토대가 된다. 교육을 바탕으로 한 직원들의 멀티플레이어적 능력이 뛰어나므로 세스텍은 부서이동도 자유롭다. 직원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여 열정, 기본업무 능력 등의 일정 조건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바로 발령을 내 준다. 현장 유지 보수 직원이 연구소 설계파트로 보직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Q. 정부에 전달하고픈 요구사항이 있다면

모든 중소벤처기업이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가 바로 인력, 기술, 자금이다. 기업들이 인력, 기술, 자금을 한꺼번에 안정한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효율적인 것이 '국가정책과 제수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정책과제 중에 중소벤처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작거나 정보 취득에서 취약한 상태이다. 실사 과제에 참석 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서류 절차 관리가 더 중요시하게 여겨게 되는 경우가 있어, 모자라는 기술 인력 중에 진행 과제 관리를 위한 인원을 별도 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과제에 의한 결과의 가치보다는 과제 자체의 완료에 더 초점을 맞추어 실제 의미가 퇴색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덧붙이자면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업체 선택도 다소 불투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즉 과제를 통한 개발 기술의 가치나 효과가 아니라 바로 매출로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느냐는 단기적 관점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어진다면 중소벤처의 성장과, 나아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2008년 하반기 세스텍의 전망과 각오가 있다면

향후 도래할 10년의 한국 로봇 역사는 세스텍에 의해 새롭게 쓰여 질 것이다. 세스텍만의 독특한 기술과 Know-How를 통해 로봇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로봇 시장, 특히 반도체 LCD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스텍의 기술 우위를 보여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스텍은 올해로 9년의 나이를 새겼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힘찬 도약의 기점이 되기 위해 하반기에는 그간의 역사와 걸은 길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향후 도래할 10년의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